

스트레스·우울감 급증...광주·전남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질병관리청 2024년 건강태도 조사 보니

광주·전남 청소년이 체감하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3일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 현상을 파악한 수치다. 올해 광주에서는 2090명, 전남에서는 2209명의 학생들이 조사에 응했다. 광주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3년 37.4%에서 올해 42.0%로 4.6%p 증가했으며, 전남 또한 2023년 35.2%에서 39.8%로 4.6%p 급증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

스트레스 인지율 광주 37.4%→42%, 전남 35.2%→39.8%로 늘어

우울감 경험률도 해마다 증가 추세...음주·흡연율은 점차 줄어들어

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학생 비율이다.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학생 비율인 '우울감 경험률'도 증가세다. 광주의 우울감 경험률은 2023년 25.2%에서 2024년 26.8%로 늘었으며, 전남은 2023년 24.2%에서 2024년 25.0%로 올랐다.

전국 추세를 보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전국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9년

39.9%에서 2020년 34.2%로 떨어졌다. 이후 2021년 38.8%, 2022년 41.3%, 2023년 37.3%, 2024년 42.3%로 뛰었다.

우울감 경험률 또한 2019년 28.2%에서 2020년 25.2%로 떨어진 뒤, 2021년 26.8%, 2022년 28.7%, 2023년 26.0%, 2024년 27.7%로 증가세다.

술, 담배를 하는 학생들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광주 학생들의 음주율은 2023년 11.6%에서 올해 9.9%로 감소했으며, 전남도 2023년 12.2%에

서 올해 9.8%로 낮아졌다.

위험음주율(평균 음주량이 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경우)은 광주 2023년 5.7%에서 올해 4.5%로, 전남 2023년 5.6%에서 올해 4.9%로 떨어졌다.

흡연율은 광주 2023년 5.2%→2024년 4.1%, 전남 2023년 5.7%→2024년 3.7%로 내려갔다.

광주 학생들은 비교적 아침식사를 더 많이 거르고, 근력운동은 덜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의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43.2%→44.4%로 올랐으며, 주 3회 이상 근력강화 운동 실천율은 26.0%→24.9%로 떨어졌다.

전남의 경우 아침식사 결식률이 42.2%→40.6%로 줄었으며, 근력강화 운동 실천율은 23.8%→25.9%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도연 광주광역시청소년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은 "아이들의 우울감과 공허함은 대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발생하는데, 아이들이 점차 미디어에 익숙해지고 '기다림'이 없는 시대를 살면서 이같은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20년에 비해 최근 정신건강 관련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전화 상담은 세 배, 현장 응급 출동은 여섯 배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디어 시대에 아이들의 사고 방식도 급변하면서 정신 건강을 지켜 줄 효과적인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현 시대 아이들에게 적합한 정신 건강 회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차량 갓길 전복...탑승자들 다행히 경상

일가족이 탑승한 SUV 차량이 지난 23일 오전 8시 50분께 여수 엑스포대로 갓길에서 전복돼 탑승자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제의 판결

일제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위자료 광주지법, 원고 요구액보다 4배 증액

일 기업에 이례적 무거운 책임
1억→4억...유사소송 영향 주목

광주지방법원이 이례적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를 원고 요구액보다 4배 증액한 판결을 내렸다.

피고측인 옛 미쓰비시 광업의 장기간 피해회복 조치를 거부한 데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한 판결로 해석된다.

광주지법의 판결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4명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11월 8일자 광주일보 6면)을 내렸다.

원고측은 사망 피해자 1인 기준 위자료로 1

억원을 청구했다. 통상적인 옛 미쓰비시 광업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위자료 산정액이었다.

애초 선고 당시 위자료 산정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위자료가 1인당 4억원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자료를 원고들의 청구액보다 4배까지 증액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의 경위와 불법성의 정도, 미쓰비시 광업의 가담 정도, 피해자들의 노동강도, 노동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오랜 기간 피고가 보상이나 배상을 완강히 거부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해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는 각 피해자별로 4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 행위 당시부터 장기간 세월이 경과해 우리나라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상승했고,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않기로 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물차가 트랙터 추돌...무안에서 2명 사상

무안에서 화물차가 앞서 가던 트랙터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2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께 무안군 무안을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앞서가던 트랙터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동승자인 50대 여성 B씨가 숨졌으며, 운전자 A씨도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트랙터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트랙터 뒤에는 밭짓을 모아 주는 장비인 '레이키'가 달려있었으며, 사고 당시 레이키 갈퀴가 화물차 조수석을 파고들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도 입건할 방침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공사현장 석축 무너져 3명 중경상

여수의 한 야적장 공사 현장에서 석축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4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0분께 여수시 신덕동의 한 야적장 공사 현장에서 석축이 무너져 포크레인 위로 쏟아졌다.

사고로 50대 운전자와 60대 석공 2명 등 총 3명이 무너진 돌에 깔렸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30여분 만에 구조됐으나 2명은 중상,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석축을 잘못 쌓는 바람에 무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순천시 새벽 길 건너던 70대, 차량에 치여 숨져

순천에서 새벽에 길을 건너던 70대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24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5시 50분께 순천시 서면의 한 도로를 건너던 A(78)씨가 B(58)씨의 승용차에 치였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로를 건너고 있었으며, B

씨는 차량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하다 A씨를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어둠 때문에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도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자료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동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